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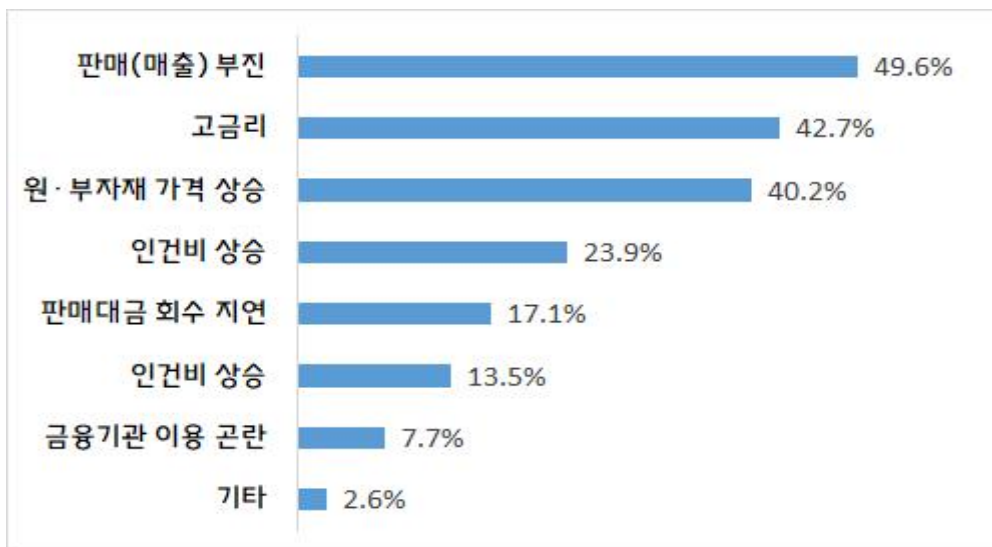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3. 1. 12(목)
담당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기훈(☎051-861-9370), 부부장 우민식(9373)		

釜蔚 中企 절반 이상 '3년연속 설 자금 곤란 호소', 주요 원인은 판매부진과 고금리

- 조달 애로는 '높은 금리', 확보 방안은 '납품대금 조기회수' 가장 많아 -
- 설 상여금은 기본급의 54.4% 또는 75.9만원 수준, 휴무일 평균 3.9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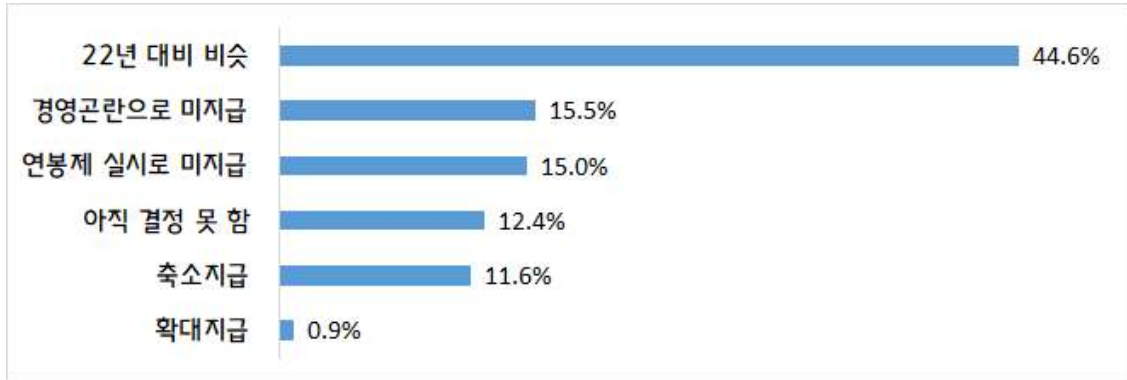
-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회장 허현도)가 부산 중소기업 233개를 대상으로 '2023년 부산·울산 중소기업 설자금 수요조사' 를 실시(23.1.2 ~ 4)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0.2%가 설자금 사정의 곤란함을 응답했고, 자금 곤란 사정의 주요 원인은 '판매(매출) 부진' 과 '고금리' 로 나타났다.
- 설자금 사정 곤란함을 호소한 중소기업이 2021년 54.7%, 2022년 53.3%, 2023년 50.2%로 3년 연속해 응답 비율 절반을 넘어, 대다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매출) 부진' (49.6%)과 '고금리' (42.7%)가 주요 원인의 1순위와 2순위로, 2022년 1순위인 '원·부자재 가격상승' (40.2%)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 자금 사정 곤란 원인(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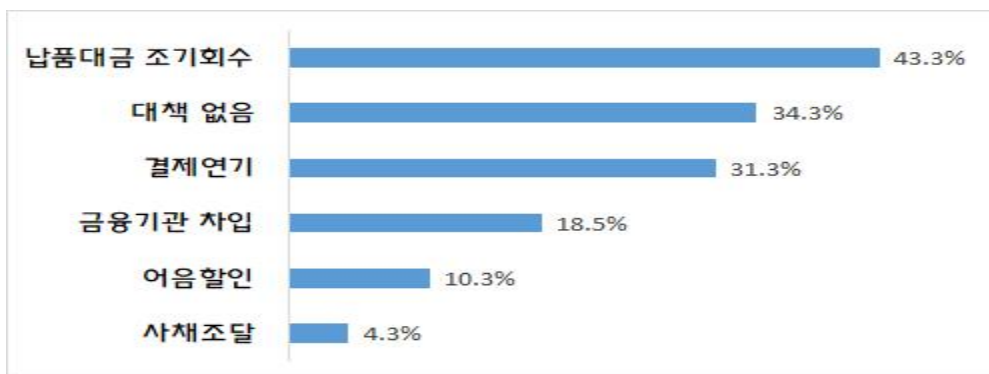
- 설 상여금은 2022년 대비 비슷한 수준(44.6%)으로 지급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업체(57.1%)가 지급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도의 46.7%에 비해 10.4%p 상승했다.

< '설' 상여금 지급 계획 >



- 연휴의 휴무일은 평균 3.9일(주말 포함)로, 전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54.4% 또는 정액 75.9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본급 59.7%, 정액 72.2만원)
- 부족한 설 자금 확보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3.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책 없음(34.4%), △결제연기(31.3%), △금융기관 차입(18.5%) 등의 순이었다.

< '설' 자금 확보 방안(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 곤란하다는 응답 비율은 45.9%로 원활하다고 한 7.3%보다 38.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22년도 27.7%p에 비해 간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조달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72.1%)가 가장 많았고, △대출한도 부족(27.0%),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16.7%), △부동산 담보 부족(12.9%),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12.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높은 대출금리’는 ‘22년 20.7%에서 51.4%p 증가하여, 금리상승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부산·울산 중소기업은 금융 이용과 관련한 애로와 지원 요청사항으로 △금리 인하(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등), △대출한도 확대를 요청하였다.
-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금리 인상과 고물가로 인해서 중소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고금리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중소기업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확대 등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47519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연산4동) Tel. 051-861-9373 Fax 051-637-2066

“이 자료는 부산·울산 중소기업 설자금 수요조사 결과로,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